문화중심도시 첫발…도심 7대 문화지구 조성 서둘러야

‘문화수도’ 조성 향후 사업과 과제

문화기반 구축 전당 효과 키워야

지역소통·문화산업 육성도 절실

‘세계를 향한 문화의 창(窓)’을 지향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 공식 개관했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은 문화전당이 광주와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그러나 문화전당이 문화창조 생태계를 조성해 광주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많다. 전문가들이 문화전당 공식개관을 계기로 도심 곳곳에 문화적 생태를 만드는 7개 문화권 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서둘러야=‘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문화전당이 개관한 만큼 이 사업의 또 하나의 축인 7대 문화권 구축 등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며,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등 양대 현안이 마무리돼야 사업이 완결된다.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은 광주 도심을 권역별으로 나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과 도시에 문화적 경관을 조성하는 문화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서 문화전당이 세워진 광주시 동구의 ‘문화전당권’은 도시의 문화에너지가 광주 전역으로 퍼지게 하는 발아(發芽)지점이다. ‘아시아문화교류권’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일상적으로 집적, 교류, 생산, 판매되는 공간으로 남구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가 사업 대상지다. ‘아시아 신과학권’은 아시아의 전승지식과 전승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광산구 비아, 첨단지구 일대가 해당된다.

또 아시아전승문화권(남구 대촌동 일대),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존권(무등산·광주호), 교육문화권(서구 마륵동 일대), 시각 미디어 문화권(북구 중외공원 일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현재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 예산의 성격이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 수정계획(2013년~2023년)에 따르면 총 예산규모는 4조 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광주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7000여억원에 달한다. 결국, 광주시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의 인프라가 완결돼 가는 상황에서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면 문화전당 건립 효과가 도시 전체에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핵심인 예산확보 문제 등 난제를 풀어내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전당 문화창조 공간돼야=문화전당을 축으로 지역에 문화 창조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역 문화기관들과 문화전당을 바탕으로 지역에 문화산업을 일으키고 브랜드를 만들자는 공감대는 이뤄진 상황이다.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광주지역 문화예술기관 대표들이 문화전당 발전을 위한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프로젝트 등의 추진단계에 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과 소통해야=그동안 문화전당 건설을 맡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지역 문화계로부터 줄곧 ‘소통부재’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전당을 채울 콘텐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도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전당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광주에 있지만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전당의 콘텐츠를 구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착공 이후 불거진 랜드마크 논란이나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 등 지역사회와 갈등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영기기자 penfoot@

개관 기념 공연 ‘빛의 숲’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전당 개관 행사에서 ‘빛의 숲’(만남과 환희)을 주제로 한 뮤지컬, 플라잉(flying)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서 퐁피두센터의 또다른 모습 본 듯”

“지역 특성 반영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 달라”

문화예술인들의 반응과 기대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전당이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아이콘이 되길 기원하면서도 콘텐츠(전시·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는 “문화전당이 기획과 창·제작, 유통까지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광주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 발신지이자 종결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인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용광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국 작가 후하이펑씨는 “북경에는 왜 이런 공간을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 부럽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문화전당이 ‘세계로 향한 문화의 창’으로 국제적인 기관을 꿈꾸지만, 지역 문화예술인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일부 전시 작품의 경우 광주만의 뚜렷한 특색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산과 대구시립미술관장을 지낸 미술평론가 김용대씨는 “문화전당에서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또다른 모습을 본 것 같다. 그 규모가 펼쳐진 느낌을 받았다”며 “전시의 경우 인문학적 깊이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전당에서 광주만이, 광주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인문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창작세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상옥 광주미협 회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미술계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제적인 교류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조선대 무용과 교수는 “광주에 있는 기관인 만큼 지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고 광주와 더불어 상생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너무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도 선보였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 발전 신기원…사업·기구 축소 아쉬워”

野정치인 대거 참석 축하 메시지…與 이정현 나홀로 참석

25일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야당·지역 출신 정치인이 대거 참석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일주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아시아문화전당은 호남에 대한 애정과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이 남달랐던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다”며 “저와 새정치연합은 지난 10년 개관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전남도청이 아시아문화중심 전당으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날이다”며 “예향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 발전의 신기원을 이루는 사건 중의 사건”이라며 “오랜 세월에 거쳐 만들고 개관까지 했으니 이제는 이 안에서 순수 문화예술로부터 문화산업까지 모든 문화가 생동하는 전당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들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전당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주 최고위원은 “만 10년 만에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됐는데 광주에 있지만 국립 전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되고 인원이라든지 기구가 축소된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 강기정·김태년·박광온·신기남·유승희·이윤석·장병완 의원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등 주요 참석 인사들과 함께 접견실에서 환담을 하고 개관식이 열린 행사장에 입장했다.

천 의원이 일반인 참석자와 함께 다른 출입문을 통해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문 대표와 천 의원은 이날 한 자리에서 마주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여권 정치인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현 정부에 만연한 ‘호남 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